

한국-우즈벡 22일 오후 4시 30분 아시안컵 8강전

# “우즈벡, ‘뉴 축구’는 처음이지?”



최복음(앞줄 오른쪽)·박종우(앞줄 왼쪽) 등 한국 남자볼링 대표팀이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2인조전에서 금·은·동 모든 메달을 휩쓸었다. <대한볼링협회 제공>

## 광양시청 최복음·박종우 아시아선수권 2인조 ‘金’

2834점으로 靛 신기록... 금·은·동 싹쓸이

‘한국 남자볼링의 간판’ 광양시청의 최복음(28)·박종우(25)가 올해 첫 국제대회인 아시아선수권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날리며,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한국 남자볼링 대표팀은 이 대회 2인조에서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했다.

최복음·박종우는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남자 2인조에서 6게임 합계 2834점을 획득,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최복음은 첫 게임에서 258점을 따낸 데 이어 224, 218, 259, 289, 243점 등 6게임 합계 1491점을 기록,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 박종우는 세번째 게임에서 퍼펙트에 가까운 290점을 획득했지만, 여섯번째 게임에서는 171점에 그치는 등 심한 기복을 보였다.

지난해 마지막 대회였던 세계남자선수권대회 2인조에서 우승한 최복음·박종우는 이날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라 ‘최강의 짝꿍’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인천교동공사의 홍해솔·김준영은 6게임 합계 2739점을 따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승현(수원시청)·강희원(부산시청)은 2718점으로 3위에 올라 한국은 이 종목에 걸린 메달을 모두 가져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에 김성규씨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에 김성규(58·사진) KNS뉴스통신 선임기자가 선임됐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광시야웨딩홀에서 제40차 이사회를 열어 김 선임기자를 신입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16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다. 김 처장은 광주상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유은하원 재경총동문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드래곤즈, 명예기자 모집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가 2015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명예기자는 선수단 동정 및 경기 결과 등 구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활동기간은 오는 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명예기자에게는 전남의 모든 경기를 취재할 수 있는 출입카드와 구단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전남 드래곤즈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3일까지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 홍보담당자에게 이메일(jjj6735@dragons.co.kr)로 전송하면 된다. 합격자는 2월6일 개별 통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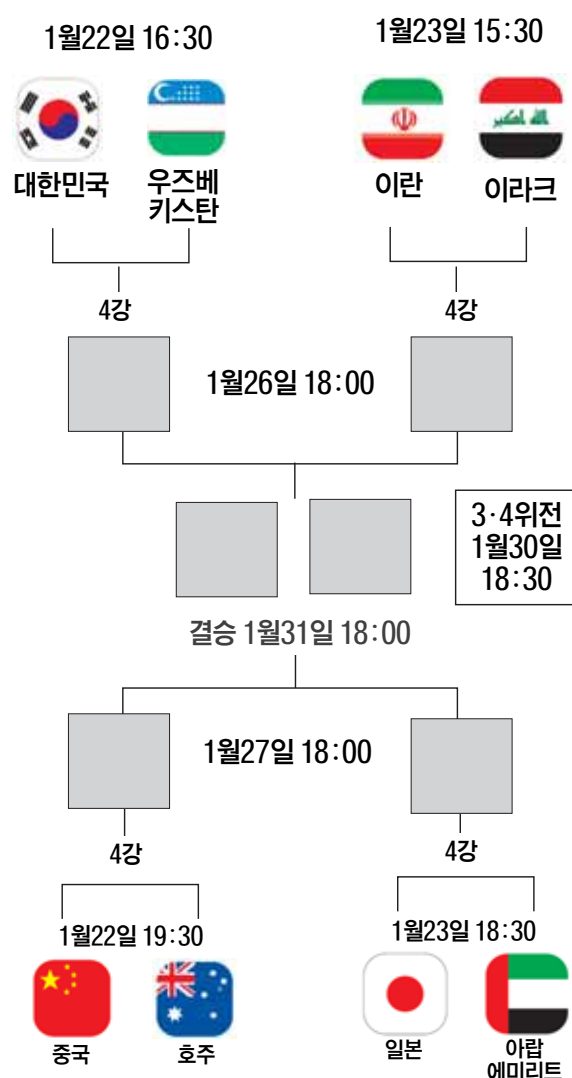
명예기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www.dragons.co.kr)나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dragonsfc)을 참조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5 AFC 아시안컵 8강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일 호주 멜버른 레이크사이드 스타디움에서 훈련하며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 2015 아시안컵 대진일정



### 이란-이라크, 중국-호주, 일본-UAE 8강 대진 확정

### 한국, 역대 전적 8승 2무 1패로 우즈벡에 압도적 우위

‘중앙아시아의 복병을 풀고, 중동의 속적을 제압하라.’ 55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으로 가는 태극전사들의 길이 험난하게 됐다. 중앙아시아의 복병인 우즈베키스탄(우즈벡)과 우승후보인 숙적 이란을 꺾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태극전사들은 내심 이란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의 승리를 기다렸다. UAE가 이기면 ‘숙적’ 이란은 조 2위로 8강에 오르게 되고, 일본과 4강행을 다투어야 하는 시나리오였다. 아이제이(以夷制夷) 전범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란이 승리하면서 태극전사들은 정면승부를 통해 스스로 이란과의 질긴 인연을 끊어야 하게 됐다.

20일 호주 아시안컵 8강 대진이 확정됐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복병 우즈벡과 22일 오후 4시30분에, 호주는 중국과 같은 날 오후 6시30분에 맞붙게 됐다. 이란은 이라크와 23일 오후 3시30분에, 일본은 UAE와 같은 날 오후 6시30분에 4강행을 다룬다.

아시아 정상으로 향하는 태극전사들의 발길을 우즈벡이 막아섰다.

한국은 우즈벡과 지금까지 11차례 만나 8승2무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1패도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준결승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우즈벡의 역습에 한 골을 얻어맞은 것이다. 이후 21년간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최근 우즈벡의 전력이 크게 향상돼 방심할 수 없게 됐다.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맞

붙어 3-2로 힘겹게 승리했고, 2012년 9월에는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또 2013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도 상대 자책골로 가까스로 1-0으로 이겼다.

우즈벡을 꺾으면 이란과 일전을 겨뤄야 한다. 한국-이란전이 성사될 경우 그동안의 악연과 맞물려 최고의 빅매치가 될 전망이다.

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지난 2013년 울산에서 벌어진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최강희 감독이 이끌던 한국에 1-0 승리를 거둔 뒤 한국 벤치를 향해 ‘주먹감자’ 세리모니를 해 논란을 빚었다. 한국은 이후 두 차례 더 이란과 맞붙었지만 모두 패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 역시 지난해 취임 후 곧바로 이란 원정에 나섰다지만 0-1로 무릎을 꿇었다. 최근 전적은 4연패.

8강전에서 빅이벤트는 이란-이라크 경기다. 정치·종교적 갈등이 그라운드로 옮겨 온 까닭이다. 전력은 이란이 한 수 위로 평가된다.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이라크가 예상 밖의 저조한 화력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평가전에서도 이란은 이라크를 1-0으로 제압했다.

호주는 8강에서 중국을 상대하고, 일본은 UAE를 상대한다. 전문가 대부분은 호주와 일본이 준결승 매치업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결승에 오른다면 ‘개최국과의 리턴매치’ 또는 ‘숙명의 한일전’이 펼쳐지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천하무적 ‘광주 FC’ 2015 유니폼 공개...활동성·강인함 강조

클래식으로 귀환한 광주 FC가 새 유니폼을 입고 도전의 시즌을 보낸다.

K리그 클래식 광주 FC가 20일 강인함을 강조한 2015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메인 유니폼은 광주의 주색이자 영광과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바탕으로 해 가로 스트라이프를 더했다. 붉은색의 가로 스트라이프는 고귀함과 존엄, 정열을 상징한다. 또 단조로움을 피하고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이나 카라로 포인트를 줬다.

보조 유니폼은 하얀색으로 단정함과 강인함을 표현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즐기는 축구를 표방하며 가슴에는 광주광

역시 민선 6기 시정구호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새겨넣었다.

메인 윙키퍼 유니폼은 강력하고 다부진 느낌이 돋보이는 파랑색을, 보조 윙키퍼 유니폼은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표현하기 위해 짙은 회색을 바탕으로 했다. 어깨 라인에는 주색인 노랑색과 붉은색을 표현했다. 등번호는 금색으로 표현해 위엄을 더했다.

한편 광주는 올 시즌 아르셀(대표 다카하시 켄토)로부터 3억 원의 공식 용품후원을 받는다. 당초 아르셀은 2억5000만원을 후원키로 했으나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후원금을 3억원으로 증액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